

조선후기 금속활자본 교정사례연구

- 壬辰字 校正刷本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Proofreading of Old Books Printed with
Metal Type of the Late Joseon Period

- A Case of the Proofread Version of the Letter Type of Yimjin Year -

김 소 희 (Kim, So H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임진자본 『당감』의 교정 |
| 2. 임진자본의 교정쇄본 | 3.1 교정방식 |
| 2.1 『貞觀政要』 | 3.2 교정횟수 |
| 2.2 『宋李忠定公奏議』 | 4. 맺음말 |
| 2.3 『唐鑑』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는 壬辰字本의 교정쇄본을 대상으로 조선후기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엄정함과 정확성을 실증하고자 한 사례연구이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임진자본의 교정쇄본은 『貞觀政要』(再見本), 『宋李忠定公奏議』(初見本), 『東萊先生音註唐鑑』(初見本, 再見本) 총 4종이다. 이들 서적은 모두 과거를 거울로 삼아 올바른 통치의 전범을 제시하고 있어 역대 제왕들의 경연교재로 사용되었다. 경연의 교재는 왕이 직접 열람하는 서적이었던 만큼 원문의 정확성은 물론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 연구에서 언급한 교정쇄본은 모두 正祖代에 인출된 임진자본의 교정쇄본으로, 조선후기 금속활자본의 교정공정과 인쇄술의 정교함은 물론 정조연간에 이루어진 인쇄출판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要語: 壬辰字, 校正刷本, 初見本, 再見本, 東萊先生音註唐鑑, 貞觀政要, 宋李忠定公奏議, 正祖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sh3725@hanmail.net)

접수일: 2015년 3월 4일 최초심사일: 2015년 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5년 3월 24일

<ABSTRACT>

This case study herein aims to demonstrate strictness and accuracy of the printing culture of the late Joseon period with proofread versions of the letter type created in the Yimjin Year (1772). For the proofread versions of the letter type of Yimjin Year that can be identified to the present days, there are a total of 4 books such as the second version of a book entitled *Zhenguan Zhengyao* (貞觀政要), the first version of a book entitled *Song Li Zhongding gong zou yi xuan* (宋李忠定公奏議), and the first and second versions of a book entitled *Donglai xian sheng yin zhu Tang jian* (東萊先生音註唐鑑). All these books were used as a textbook of the royal lecture “the study to be a good emperor” for kings of the Joseon Dynasty as the books set forth a role model of a good ruler, learning from the past. As the textbooks for the royal lecture was what a king directly perused, required was to consider aesthetic beauty of the original text as well as the accuracy of it. The proofread versions stated in this study is all the proofread versions of the letter type of Yimjin Year created during the period of King Jeong-Jo, which is valued highly in that they serves as the data that can see a part of the printing publication culture achieved during the period of King Jeong-Jo as well as the proofreading process and exquisiteness of typography of the books printed with metal type of the late Joseon period.

Key words: Letter Type of Yimjin Year, Proofread Version, First Version, Second Version, *Donglai xian sheng yin zhu Tang jian* (東萊先生音註唐鑑), *Zhenguan Zhengyao* (貞觀政要), *Song Li Zhongding gong zou yi xuan* (宋李忠定公奏議), King Jeong-Jo

1. 머리말

이 글은 정조연간에 인출된 壬辰字 校正刷本の 발굴에 따른 자료소개 및 『東萊先生音註唐鑑』(이후 『唐鑑』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중앙에서 간행된 금속활자본의 교정방식과 교정공정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금속활자 교정쇄본에 관한 연구는 황천오(1977)¹⁾와 장원연(2014)²⁾에 의해 시도되었다. 황천오는 임진자본 『정관정요』 교정쇄본³⁾을, 장원연은 정유자본 『주역전의대전』의 교정쇄본을 대상으로 교정방식과 교정횟수를 분석함으로써 금속활자 인출본의 정교함과 조선후기 금속활자본의 교정에 얼마나 많은 공력이 소요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소개하고자 하는 교정쇄본은 황천오가 언급했던 『정관정요』를 포함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국도로 약칭) 소장본과 일본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大阪府立中之島圖書館, 이하 나카노시마도서관으로 약칭) 소장본인 『당감』⁴⁾, 중국 상해도서관 소장본인 『宋李忠定公奏議』⁵⁾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당감』은 최초의 교정쇄본인 初見本과 두 번째 교정쇄본인 再見本이 모두 남아있어서, 여타의 교정쇄본에 비해 임진자본의 교정방식과 교정공정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임진자 교정쇄본에 대한 소개 및 『당감』 교정쇄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후기 금속활자 인쇄문화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황천오, “貞觀政要,” 『國學資料』 25(1977), 1-7.

2) 장원연, “정유자본 『주역전의대전』의 간행과 교정,”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9), 371-394.

3) 황천오(1977)는 『정관정요』 교정쇄본을 무신자본로 판별하였다. 그러나 인판의 형태와 활자 상태로 볼 때 임진자본으로 보인다.

4)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11), 207.

5) 이 자료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주관으로 2014년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수행한 ‘중국 상하이도서관 및 푸단대학교 도서관 실태조사’에 참여하여 직접 실사하였다. 이 책에 대한 서지사항과 해제 및 원문이미지는 올해 7월경에 출간될 예정인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2. 임진자본의 교정쇄본

2.1 『貞觀政要』

『정관정요』는 唐 吳兢(670-749)이 『太宗實錄』 등의 故實에서 뽑아 유별로 편찬한 40편 10권의 서적으로, 唐 貞觀年間(627-649)에 太宗 李世民(598-649)이 魏徵(580-643)·房玄齡(578-648)·杜如晦(585-630) 등 45인의 신하와 정치를 논한 議論을 수록하고 있다. 元代에 이르러 戈直이 고증하고 주석한 후 諸儒들의 논설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군주의 도리와 나라를 다스리고 정권을 공고히 하는 요체, 현명한 관리를 임용하는 법, 간언에 대처하는 올바른 군주상의 모습, 군신이 본받아야 할 점, 관원을 적재적소에 채용하는 방법, 봉건에 관한 의논, 태자와 諸王들이 본받아야 할 법도, 인의·충의·효우 등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의론, 이세민의 검약에 대한 기록, 유학과 문사 및 예악에 대한 존숭, 농상을 중시하고 요역과 부역을 가볍게 하는 것에 대한 의론, 소수 민족에 대한 회유 정책, 이세민의 行幸과 수렵에 관한 문제, 재앙이 미치기 전에 방지하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⁶⁾

명나라 憲宗이 “이 책을 보면 역대의 흥망치란과 이해득실이 명백해지고 긴요하게 드러나게 되어 감계로 삼을 수 있다”⁷⁾고 했듯이, 이 책은 역대 제왕이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과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널리 유통되었다. 고려시대에 이미 제왕학의 교재로 읽혀졌고,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註解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⁹⁾ 조선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경연 교재로 활용되었고, 譯科 取才시에 몽고어의 시험과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¹⁰⁾ 1395년(태조 4)에 이 책을 교정하라는 명이 내려졌고,¹¹⁾ 1455년

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편, 『藏書閣韓國本解題－史部 2』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70-171.

7) 『貞觀政要』 「御製貞觀政要序(1465)」.

8) 『고려사절요』 광종원년(950) ; 『고려사절요』 공양왕2년(1390).

9) 『고려사절요』 예종11년(1116).

(세조 1)에는 『정관정요주해』가 편찬되기도 하였다.¹²⁾ 1568년(선조 1) 이전에는 전라도 전주에서 목판본을 간행했고,¹³⁾ 1675년(숙종 1)에는 중앙의 교서관에서 금속활자본을 인출하기도 했다.¹⁴⁾

1734년(영조 10)에 이르면 영조의 어제서문이 추가된 새로운 인본이 인출되었다.¹⁵⁾ 이 이후로는 인출에 관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지만, 현전본을 살펴보면 정조연간에 임진자본의 인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교정쇄본이 바로 임진자본의 교정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0권 4책의 전질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형태 사항은 다음과 같다.

四周單邊 半郭 24.5 x 16.8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31.8 x 21.0 cm.

황천오¹⁶⁾는 이 교정쇄본이 초견본이나 재견본이 아닌 최소 3~4번째에 이루어진 최종교정본으로 보았다. 추정 근거는 <그림 1>과 같이 본서의 권5 제9장 뒷면의 欄上에 기재된 “今此期於改填(이번에는 기필코 개정해야 한다)”이라는 교정문구이다. 이 문구는 제5행 제12자에 보이는 ‘字’자를 ‘宗’으로 교정하라는 지시 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황천오는 이 문구를 ‘다른 것은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포해도 좋지만 이 부분만은 반드시 교정하라는 강력한 지시 사항’이라

10) 『세종실록』 세종12년(1430) 3월 18일.

11) 『태조실록』 태조4년(1395) 9월 4일.

12) 『세조실록』 세조1년(1455) 윤6월 12일 ; 국도(古貴0237-4)에 을해자본이 현전한다. 권5의 제14~17만 남아있는 零本이며, 제14(論忠義)의 앞부분 일부가 결락되었다. 李仁榮 또한 이 책의 권7을 소장했다고 한다(李仁榮, 『청분실서목』 권5). 주해를 대상으로 임진자본 『정관정요』와 대조해보면 많은 차이가 발견되어 조선전기 『당감』의 이해를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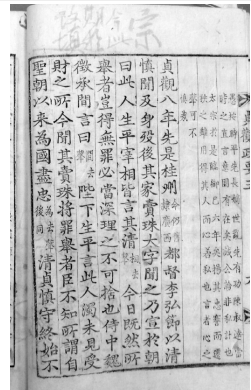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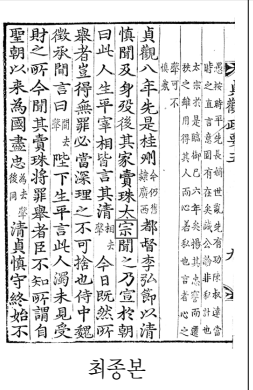
13) 선조 1년(1568) 을해자본인 『攷事撮要』 『八道程途』 全州 冊板條에 이 책이 포함되어 있다.

14) 『숙종실록』 숙종 1년 12월 18일.

15) 『영조실록』 영조 10년 12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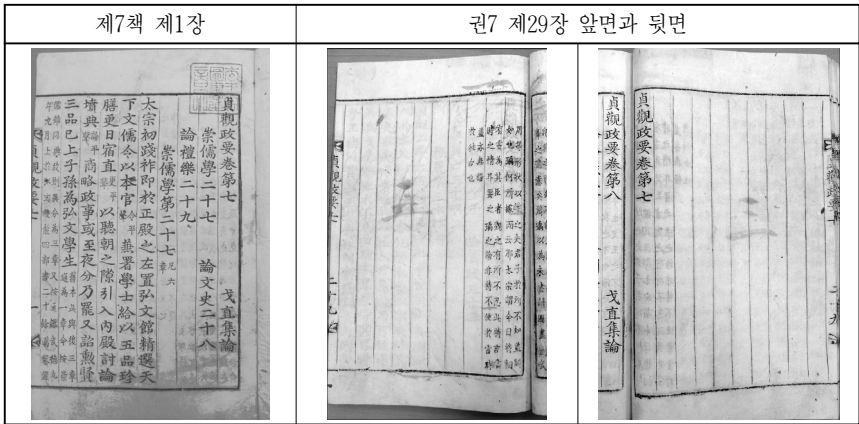
16) 황천오(1977), 7.

고 보았고, 이 때문에 최종교정쇄본이라고 여긴 것이다.

장서각(K2-332)	국도(한古朝31-37)	장서각(K2-332)
	 최종본	 今此期於改填 / 宗

<그림 1> ‘字’를 ‘宗’으로 수정 지시한 내용

그러나 필자는 <그림 2>에서와 같이 제7책의 앞표지와 제1장이 제책된 부분에 朱筆 大字로 쓰여진 ‘再’자의 일부와 권7의 제29장 앞면(권7의 마지막 장임)의 여백에 朱筆 大字로 쓰여진 ‘再’자를 통해 볼 때, 최종교정본이 아닌 再見本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권7의 제29장 뒷면의 경우 ‘三’자가 기재된 점으로 보아 삼견본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그림 2> 재건본 또는 삼견본으로 추정되는 근거

2.2 『宋李忠定公奏議』

『송이충정공주의』는 宋 高宗 때의 승상이었던 忠定公 李綱(1085-1140)의 上奏文 등을 수록한 책으로, 1183년(淳熙 10)에 朱熹가 서문을 작성하였다. 총 16권 본으로, 권 1-10은 이강이 작성한 劄子·奏狀·表·封事·十義이며 권11-16은 부록으로 소, 론 등이 수록되어 있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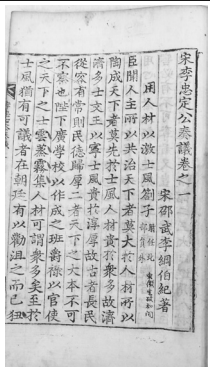
이 책은 영조대에 이르러 경연에서 강독되었고, 唐 陸贄(754-805)의 『陸宣公奏議』와 함께 嘉言과 治謨를 담고 있는 서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劄子 등에서 다룬 사항은 內外國政의 전반에 걸쳐 있으나 저자 李綱이 당시 對金主戰論者였기 때문에 用兵·軍制·守禦·募兵·車戰 등에 관한 것이 많으며, 의례적인 것도 상당수에 달하여¹⁸⁾ 상평의 제도 및 군제 등 국정 운영을 위한 참고서로서도 활용되

17) 조선본은 모두 16권본인데 비하여, 이보다 앞서 간행된 명판본(1516년본)은 본집 69권·부록 9권의 총 78권본이다. 조선본과 명판본을 목차만을 대상으로 간단히 대조해보아도 명판본의 78권 중 일부만이 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권수제에 있어서도 조선본은 ‘송이충정공주의’인 반면 중국본은 ‘宋丞相李忠定公奏議’로 차이를 보인다. 중국본의 조선 수용과 변용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본(奎中608) 해제.

었다.¹⁹⁾ 그러나 정조대에 이르면 정조가 『육선공주의』를 애호하여 임진자본으로 인출하거나 『어정육주약선』 또는 『육고수권』과 같은 선집본을 편찬하기도 했던 반면²⁰⁾ 『송이충정주의』는 『육선공주의』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하였다.

이 책의 간행을 언급한 문헌 기록은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顯宗實錄字本과 임진자본이 현전하여 숙종말~영조 1년(현종실록자본)과 정조대(임진자본)에 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현종실록자본의 인출시기는 장서각에 소장된 순암 안정복의 手澤本(K2-2012)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 인본은 <그림 3>과 같이 권16의 마지막장 欄上에 “英宗乙巳王考蔚府時備來”라는 장서내력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록은 안정복의 조부인 安瑞羽(1664-1735)가 을사년에 울산부사로 있을 때(1725년 5월 17일 임명)에 가져온 책임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현종실록자본의 인출시기는 상기 기록과 활자와 인출면의 상태를 고려해볼 때 숙종말~영조 1년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책 제1장 앞면	권1	권16말
		

<그림 3> 순암 안정복의 手澤本(K2-2012)

- 19) 『영조실록』 영조 10년 4월 15일 1번째 기사 ; 『영조실록』 영조 10년 4월 16일 3번째 기사 ; 『영조실록』 영조 10년 4월 30일 4번째 기사 ; 『영조실록』 영조 10년 5월 7일 1번째 기사 ; 『영조실록』 10년 5월 10일 1번째 기사 ; 『영조실록』 영조 10년 6월 2일 4번째 기사.
- 20) 김민현, “조선시대 陸宣公奏議의 受用과 刊行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12), 106.

여기서 소개할 교정쇄본은 현종실록자본을 저본으로 간행한 임진자본의 교정쇄본으로, 16권 8책의 전질이 중국 상해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²¹⁾ 교정쇄본의 제1책 앞표지와 제1장 목록면 사이의 제책된 부분을 보면, 朱筆 大字로 ‘初見’이라고 쓰여진 글자의 일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교정쇄본은 처음 교정할 때 사용했던 초견본임을 알 수 있다.

2.3 『唐鑑』

『당감』은 范祖禹(1041-1098)가 唐 高祖 武德 元年(618)에서 昭宣帝 天祐 4년(907)에 이르는 290년간의 唐朝史를 강목체로 서술한 책이다. 범조우는 『자치통감』을 저술하던 당시에 編修官의 자격으로 唐史 부분을 분담하여 저술하였는데, 후에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唐代史의 大綱을 모은 후 자신의 논단을 덧붙여 이 책을 편찬하였다. 1086년(元祐 元年)에 책이 완성되자 哲宗에게 진헌했는데, 진헌할 당시에는 12권이였다. 『東萊先生音註唐鑑』은 여기에 呂祖謙(1137-1181)이 주석을 덧붙여서 편찬한 책으로, 24권본의 체제를 지닌다.

우리나라에 『당감』이 언제 유입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1135년(고려 仁宗 13)에 왕이 天成殿에 나아가 兩府의 大臣과 侍從官을 불러놓고 한림학사 鄭沆에게 명하여 강독하게 한 점으로 보아 중국에서 이 책이 편찬되고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이미 고려에 유입되어 제왕학의 텍스트로 읽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²⁾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1395년(태조 4)에 『고려사』를 편찬하여 바치자 태조가 내린 교서의 내용 중에 『고려사』를 『당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했고,²³⁾ 1423년(세종 5)에는 集賢殿副提學 申檣·奉常判事 成概·左獻納 鄭芾·集賢殿應教 俞尙智·鄭麟趾 등에게 명하여 『당감』을 필사하게 했으며,²⁴⁾

21) 각주 5)를 참조.

22) 『高麗史』 卷16, 『世家』 卷16, 仁宗 13年(1135) 8월 11일.

“八月 壬子 御天成殿, 召兩府大臣及侍從官侍坐, 命翰林學士鄭沆, 讀唐鑑.”

23) 『태조실록』 태조 4년(1395) 1월 25일 1번째 기사

24) 『세종실록』 세종 5년(1423) 3월 23일 6번째 기사.

1490년(성종 21)에는 각도의 관찰사에게 道内の 민간에 있는 책을 구해 올리라는 명을 내릴 적에 구해야 할 서적의 일부로서 거론되었다.²⁵⁾ 1594년(선조 27) 10월에는 경연과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석강과목의 대상에 포함되었고,²⁶⁾ 1708년(숙종 34) 2월에 경연에서 강독되기도 하였다. 영조대에도 여러 차례(즉위 8년, 37년, 41년)에 걸쳐 경연에서 읽혀졌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당감』은 『정관정요』와 마찬가지로 제왕학에 관계된 서적으로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경연에서 자주 강독되었던 책이다.

조선에서 간행된 역대 刊印本으로는 1511년의 초주갑인자본을 시초로, 1562년의 경주목판본, 1731년에 嶺營板本, 간행처미상의 18세기 목판본, 정조연간의 임진자본 등이 있다. 초주갑인자본은 1512년(중종 7)에 권오기에게 반사한 실물 활자본²⁷⁾을 통해서 1511년(중종 6)에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1562년의 경주본은 ‘慶州府刊板’이라고 새겨진 간기를 통해 간행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해에 작성된 李楨(1512-1571)의 識語를 통해 간행시기와 간행경위 및 책의 성격도 간략히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북경본 『당감』 1부를 얻었는데, 글자는 많이 이지러지고 잘못되었고 행은 빠지고 누락되어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이후에 활자본을 얻어서 두 본을 대교해보니 비록 서로 득실이 있지만 주자본[초주갑인자본]이 더욱 뛰어났다. 이에 의심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없어지고 바뀐 부분을 보충해서 목판에 등재하니, 改字는 172자요, 添字는 155자요, 削字는 41자이다. 혹시라도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은 모두 두 간본의 옛것을 따라서 의심나는 것은 제외하였으니, 박학한 군자들이 상고하여 바로잡기를 기다린다. 가정 임술년(명종 17, 1562) 가을 8월에 이정(1512-1571)이 삼가 적다.²⁹⁾

25) 『성종실록』 성종 21년(1490) 2월 15일 3번째 기사.

26) 『선조실록』 선조 27년(1594) 10월 20일 4번째 기사.

27) 이 초주갑인자본은 고려대 소장본(만송 貴 207 1)으로, “正德七年(1512)三月日, 內賜司憲府持平權〇〇[五紀]一件命除謝恩, 右承旨臣李(手決)”의 내사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볼 때 1512년에 김종직의 문인이자 권오복의 형인 권오기(1463-?)에게 이 초주갑인자본을 반사했음을 알 수 있다.

28) 『중종실록』 중종 6년(1511) 6월 5일 2번째 기사.

29) 『東萊先生音註唐鑑』, 誌(李楨).

“嘗得燕本『唐鑑』一部, 字多舛訛, 行又缺落, 幾不可讀. 後得鑄本, 叅校兩帙, 則雖互有得

지어의 내용을 보면, 1562년 당시에 경주관찰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정이 중국 본과 앞서 언급한 초주갑인자본을 상호 대조한 후, 총 368자의 오류를 바로잡아 간행한 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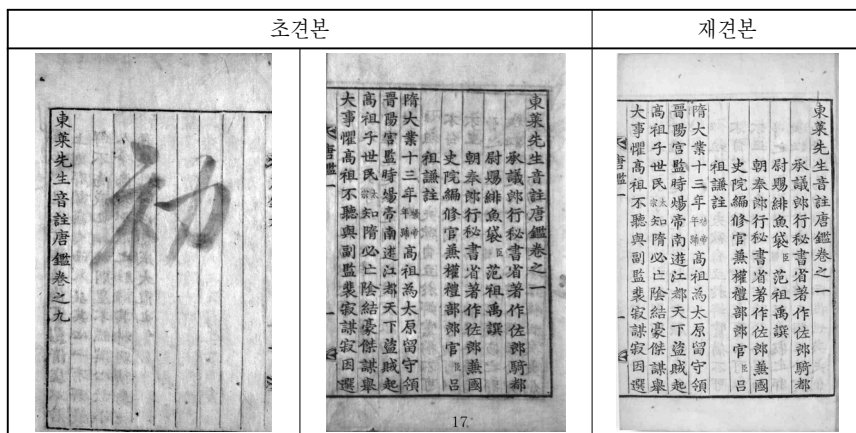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각 판본의 구성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조선전 기본은 권수에 범조우의 서문, 1497년(홍치 10)에 작성된 白昂(1435-1503)과 呂鑑³⁰⁾의 重刊序文 각 1편, 歷代紀元之圖 및 唐歷代傳世之圖, 元祐 元年(1086)에 范祖禹가 작성한 進唐鑑表, 目錄가 수록되어 있는 반면에, 조선후기본인 영영 판본과 임진자본에는 범조우의 서문과 歷代紀元之圖 및 唐歷代傳世之圖가 삭제되어 있다.

지금 소개할 자료는 정조연간에 임진자로 인출한 교정쇄본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유일하게 초견본과 재견본이 모두 남아있다. 초견본은 국도 소장본(古 2242-1, 6책본)이고, 재견본은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韓4-57, 4책본)이다. 卷數는 모두 24권으로 동일하며, 각 권의 張數도 동일하다. 다만 卷首에 수록된 서문의 순서가 초견본은 呂鑑 → 白昂의 순이며, 재견본은 임란이전 간본 및 임진자 완성본과 같은 白昂 → 呂鑑의 순으로 되어 있다.

국도본은 <그림 4>에서와 같이 권9 마지막 장의 여백에 朱墨 大字로 ‘初’자가 기재되어 있어 초견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카노시마도서관본은 어디에도 ‘初’, ‘再’, ‘三’ 등의 글자를 찾을 수 없다.

失, 而鑄本頗勝. 於是訂正疑誤, 添補刪改, 以登于板. 改字百七十二, 添字百五十五, 削字四十一. 其或末有所考者, 則悉從兩本之舊, 而闕其疑焉. 留埃博學君子詳考改正云. 嘉靖壬戌秋八月李楨 謹識.”

30) 呂鑑은 字가 廷韶, 號는 善庵으로 眞定府 晉州人이다. 1490년(홍치 3)에 진사가 되었고, 常州府 武進縣의 縣令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림 4> 초견본과 재견본

그러나 초견 당시에 지적했던 교정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었고, 그럼에도 여전히 교정해야 할 부분이 산재하고 있으므로,³¹⁾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은 교정방식과 교정수량을 통해 볼 때 재견본으로 추정된다.

3. 임진자본 『당감』의 교정

3.1 교정방식

『당감』의 초견본과 재견본에 나타나는 교정방식은 『정관정요』나 『송이충정공주의』 및 정유자본 『주역전의대전』과 대동소이하다. 장원연(2014)³²⁾은 『주역전의대전』의 교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1) 재견본에 반영된 초견본의 지적사항 및 두 교정쇄본의 교정횟수에 관해서는 이 글의 제3장에서 서술하였다.

32) 장원연(2014), 384-391.

- 1) 한 글자 전체가 흐리게 인쇄된 경우
- 2) 글자의 상하좌우 중 한쪽 부분이 흐리게 인쇄된 경우
- 3) 주변 글자에 비해 진하게 찍힌 글자
- 4) 좌우로 기울어진 글자
- 5) 좌우상하로 치우친 글자
- 6) 먹이 뭉쳐져 인쇄된 글자
- 7) 흔들린 글자
- 8) 오자
- 9) 탈자
- 10) 너덜이가 남은 글자

이는 황천우³³⁾가 제시한 6가지 교정방식이 세분된 내용으로, 너덜이나 흔들림에 대한 교정을 제외하면 두 연구에서 제시한 교정쇄본의 교정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필자는 두 연구를 종합하되, 특히 황천우가 제시한 교정방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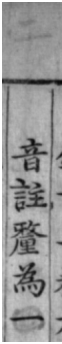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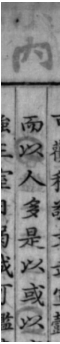
- 1) 오자: 오자에 朱墨으로 ‘○’를 표시하고, 오자가 위치한 行의 欄上에 교정할 글자를 기재함. 한 줄에 2자 이상의 오자가 출현할 경우, 내용의 순서에 따라 해당 行의 欄上에 위에서 아래로 또는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순차적으로 기재함.
- 2) 탈자: 글자가 탈락된 경우에 누락된 위치에 朱墨으로 누락된 글자를 기입함. 수정할 활자 크기를 고려하여 중자와 소자를 구별하여 기재함.
- 3) 활자위치: 활자의 위치가 정중앙에 있지 않고, 상·하·좌·우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 ‘┐’·‘┌’·‘└’·‘┘’를 각각 해당 위치에 표시함. ┐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글자를 왼쪽으로 보내는 표시이며, ┌는 왼쪽으로 치우친 글자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표시이며, └는 아래쪽으로 치우친 글자를 위쪽으로 올리라는 표시이며, ┘는 위쪽으로 치우친 글자를 아래쪽으로 내리라는 표시임.
- 4) 활자방향: 활자의 방향이 우측(시계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은 \를, 좌측(반시계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은 /를 각각의 글자 위에 덮어서 표시함.
- 5) 활자수평: 활자의 높낮이가 고르지 못해서 글자의 일부분이 희미하게 인출된 경우에 희미한 부분에 朱墨으로 점(·)을 찍어 수평을 맞추도록 지시함.
- 6) 너덜이: 글자의 일부 획에 반점이 있는 경우, 반점이 있는 위치에 朱墨으로 ㄱ 또는 ㄴ를 쳐서 제거할 것을 지시함.

이 밖에도 계선이나 광곽 및 어미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인출되었거나, 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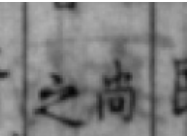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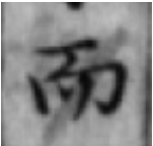
33) 황천우(1977), 5-7.

림으로 인해 번져서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크기(길이)만큼 朱墨으로 길게 선을 긋거나 원을 그려 넣는 경우도 있다.

상기한 교정방식은 크게 원문 내용 교정(1, 2번)과 인출 상태 교정(3-6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그림 5>와 <그림 6>는 『당감』 초견본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교정방식 1			
오자		탈자	
			

<그림 5> 『당감』 초견본의 원문 교정방식

교정방식 2			
활자위치(ㄱ-ㄱ)	활자방향(/)	활자수평(')	너덜이(˘)
			

<그림 6> 『당감』 초견본의 인출상태 교정방식

3.2 교정횟수

『당감』은 현재까지 발견된 교정쇄본 중에서 초교와 재교의 교정쇄본이 모두 남아있어 조선후기 금속활자의 인쇄문화의 일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당감』의 초견본과 재견본을 상호 대조하여 얼마나 많은 교정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조선후기 금속활자본의 교정과정 및 인쇄출판문화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황천우가 『정관정요』 再見本 총 10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교정횟수는 총 4,653건이며, 세부적으로는 오자 145건 · 탈자 18건 · 활자 위치 교정 205건 · 활자 방향 교정 3,223건 · 활자 수평 교정 386건 · 반점자(너덜이) 교정 676건이다. 즉, 오탈자와 같은 내용 교정은 163건에 불과하며 인출 상태에 대한 교정이 4,490건으로 압도적인 수량을 차지한다.³⁴⁾

장원연이 『주역전의대전』 再見本을 1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교정횟수는 약 1,600건이며, 세부적으로는 흐림 825건 · 기움 513건 · 먹몽침 121건 · 치우침 79건 · 오자 14건 · 너덜이 11건 · 흔들림 9건 · 탈자 7건 · 진함 6건 · 미확인 13건이다. 『주역전의대전』은 전체 24권과 총목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만일 권1과 비슷한 수준의 교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재견본 전체에만 무려 4만여 자의 교정 지시가 있었을 것이며, 초견본은 훨씬 더 많은 교정지시가 내려졌다³⁵⁾고 보았다. 『정관정요』와 『주역전의대전』 모두 재견본임에도 여전히 많은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당감』 교정쇄본의 경우에는 초견본에서 약 5,200건 · 재견본에서 약 2,696건의 교정지시가 나타나며, 권별 세부적인 교정횟수는 <표 1>과 같다.

34) 황천우(1977), 5-7.

35) 장원연(2014), 384-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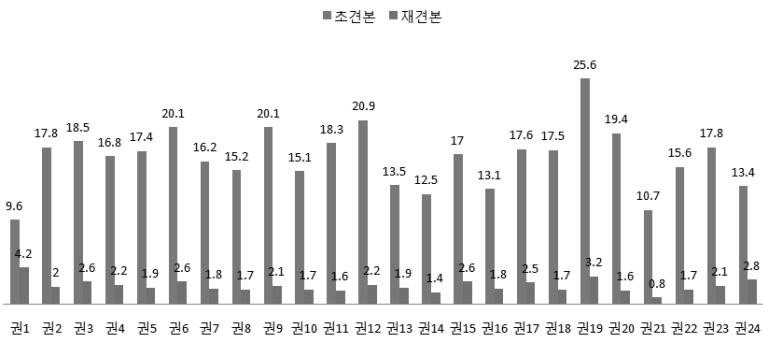
<표 1> 『당감』 교정쇄본의 교정횟수

卷次		張數	卷別 실교정횟수 및 1張당 교정비율			
			초견본		재견본	
			卷別(건)	張당(건)	卷別(건)	張당(건)
重刊序	白昂	1	1	1.0	1	1.0
	呂鏜	2	17	8.5	0	-
進唐鑑表		4	30	7.5	16	1.9
권1		12	134	11.2	63	2.1
권2		11	196	17.8	98	2.0
권3		14	259	18.5	100	2.6
권4		13	219	16.8	100	2.2
권5		14	243	17.4	127	1.9
권6		16	322	20.1	126	2.6
권7		18	291	16.2	163	1.8
권8		11	167	15.2	100	1.7
권9		17	341	20.1	166	2.1
권10		14	211	15.1	125	1.7
권11		15	275	18.3	171	1.6
권12		17	355	20.9	159	2.2
권13		11	148	13.5	79	1.9
권14		18	225	12.5	156	1.4
권15		14	238	17.0	91	2.6
권16		14	184	13.1	104	1.8
권17		13	229	17.6	93	2.5
권18		15	262	17.5	156	1.7
권19		12	307	25.6	97	3.2
권20		14	272	19.4	168	1.6
권21		11	118	10.7	143	0.8
권22		10	156	15.6	94	1.7
권23		10	178	17.8	86	2.1
권24		14	188	13.4	68	2.8
총계		311	5,200	16.6	2,696	2.0

<표 1>은 초견본과 재견본의 장당 교정횟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정방식을 세분하지 않고 교정횟수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 301장 중 교정지시는 초견본의 경우 5,045건, 재견본의 경우 2,602건이다. 전체

교정횟수를 301장으로 나누어 한 장당 교정횟수를 살펴보면, 초견에서 장당 16.6건이었던 교정지시가 재견에서는 장당 2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교정상황을 권별로 살펴보면 초견본은 장당 최대 26건(권19)에서 최소 10건(권1)의 교정이 이루어졌고, 재견본은 장당 최대 4건(권1)에서 최소 1건(권14, 권21)의 교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³⁶⁾



<그림 7> 초견본과 재견본의 장당 교정횟수

교정이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려면 실제로 사용된 전체 글자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하나의 인판틀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글자수와 최소 글자수를 계산한 후 전체 글자대비 교정비율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재견본의 교정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1장을 기준으로 한 교정쇄본의 행자수는 중자 20행 16자, 소자 40행 32자이다. 따라서 하나의 인판틀에 들어갈 수 있는 활자수는 중자의 경우 최대 320자, 소자의 경우 최대 1,280자이다. 총 301장의 경우, 중자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96,320자가 포함되며, 소자만 사용했을 경우 385,280자가 포함된다. 즉 301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활자수는 약 96,000~385,000자이다. 교정은 중자인지 소자인지에 상관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글자대비 교정비율은 <표 2>에서와 같이 초견본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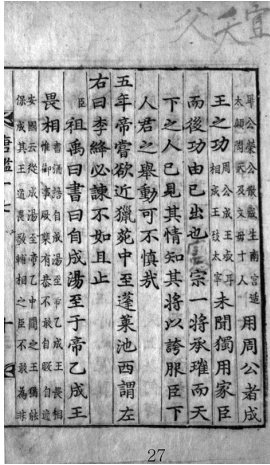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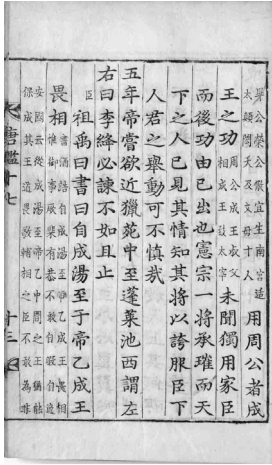
36) 권1은 권수의 ‘중간서’와 ‘진당감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다.

최소 1%~ 최대 5%이며, 재건본의 경우 최소 0.7%~ 최대 2.7%를 차지한다.

<표 2> 『당감』 교정쇄본의 교정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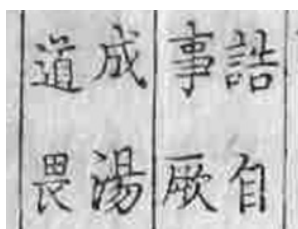
종류	교정자	추정		
		활자	삽입 가능 활자	백분율
초건본	5,045	중자	96,320	5.2%
		소자	385,280	1.3%
재건본	2,602	중자	96,320	2.7%
		소자	385,280	0.7%

초건본과 대비해서 재건본에 오면 교정횟수가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지만, 권21의 경우에는 오히려 143건으로 초건본의 118건보다 많은 교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재건본에는 초건본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새롭게 추가된 교정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그림 8>과 같이 재건본은 초건본에서 지적한 11건의 교정지시를 모두 반영했고, 아울러 재교를 통해 5건의 교정사항을 추가하였다.

	초건본(11건)	재건본(5건)
전체		

<그림 8> 초건본의 교정이 반영된 사례(권17, 제13장)

<그림 9>는 <그림 8>에 보이는 교정사항을 교정방식에 따라 분류·대조한 것이다.

교정방식	초건본	재건본
내용교정	 	 
위치교정		
방향교정		

<그림 9> 초건본의 교정이 반영된 사례(권17, 제13장)

<그림 9>의 내용교정 첫 번째 사례는 細註의 ‘成’, ‘天’, ‘耳’자를 ‘宜’, ‘天’, ‘父’자로 교정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정한 것이며, 두 번째 사례는 누락된 ‘憲’자를 지정한 대로 인출한 것이다. 위치교정은 초건본에서 같은 열에 위치한 ‘國’자와

‘成’자의 활자를 모두 위로 올리라는 지적을 재건본에서 반영한 사례이다. 전체 판면을 볼 때에는 반영된 결과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렵지만, 어미를 기준으로 활자의 위치를 대조해보면 초건본에서 지시한 대로 재건본에서는 활자의 위치가 조금 위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향교정은 우측으로 기울어진 활자인 ‘事’와 ‘畏’자를 좌측으로 재배열하라는 지적에 따라 교정된 사례이다.

이렇듯 재건본은 초건본의 교정사항을 모두 반영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총 5건의 새로운 교정을 추가하였다. 예컨대 <그림 8>의 재건본을 살펴보면 제1행 소자 제1행 제1자인 ‘畢’, 제3행 제15자인 ‘而’, 제6행 제9자인 ‘申’자, 제9행 소자 제1행 제10자인 ‘帝’와 제15자인 ‘畏’자 총 5건에 대해 활자 위치, 너털이에 대한 교정이다.

이상은 전체 301장 총 602면 중 1면에 불과한 사례이지만, 재건본은 대체로 초건본의 오류를 반영하는 한편 심화 교정이 이루어진 인쇄본이다. 『錄勳都監儀軌』를 보면 균자장이 사용했던 도구 중에 ‘初再三見白紙’ 즉 초견지, 재견지, 삼견지가 포함되어 있는데,³⁷⁾ 이는 적어도 3차례의 교정인쇄가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당감』 재건본은 초건본의 오류를 대부분 수정했지만, 여전히 2,600여 건이 넘는 교정지시가 나타나므로, 『녹훈도감의궤』에서와 같이 적어도 1회 이상의 교정인쇄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이 글에서 소개한 『정관정요』, 『송이충정공주의』, 『당감』은 모두 올바른 통치의 전범을 보여주는 한편 과거를 거울로 삼아 현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제왕학의 교재로서 경연에서 줄곧 강독되었다. 경연의 교재로 하나의 책이 선정이 되면 왕은 해당 책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였고, 만일 수량이 부족하

37) 옥영정, “인쇄판청의 활자인쇄 匠人에 대하여,” 『조선시대 인쇄출판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 150.

거나 책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여겨지면 지방에 인출을 명하여 진현하도록 하거나 활자를 새로 조판하여 印進하도록 하였다. 경연에서 사용할 교재는 왕이 직접 열람하는 서적이었던 만큼 원문의 정확성은 물론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고려해서 한 치의 잘못도 허용되지 않았다. 예컨대 경연의 강독 교재로 『정관정요』를 인출하도록 명하면서 인본에 誤字가 생길 경우 법전에 따라 논죄하겠다고 교서관에 경고했던 점이나,³⁸⁾ 사서·삼경·『사략』·『소학』 등을 인출하려 할 적에 어린 나이에 강하는 책이므로 더욱 신중히 살펴서 인출해야 하며 특히 訓義에 한 글자라도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唱準에게 경계하라³⁹⁾고 지시한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교정쇄본 이외에 1796년(정조 20)에 인출한 정유자본 『사기영선』과 정유자본 『어정육주약선』의 경우에도 교정본으로 추정되는 인본이 남아 있는데, 이 교정본을 최종본과 비교하면 판식의 차이는 물론 誤字도 확인된다. 조사된 誤字는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교정본 형태로 최소 2~3회 이상 인출되었다.⁴⁰⁾ 이 교정본 이전에 이미 초견본과 재견본 같이 朱墨으로 표시한 교정쇄본도 분명 존재했을 것이므로, 조선후기에 하나의 완전한 금속활자본을 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력이 소모되었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임진자본 교정쇄본을 토대로 정조연간에 이루어진 인쇄출판문화의 일면을 살펴본 사례연구이다. 이러한 개별적 사례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 인쇄출판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조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8) 『승정원일기』 영조 10년 11월 3일.

39) 『영조실록』 영조 20년(1744) 2월 17일.

40) 김소희, “『사기영선』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제40호(2012. 12), 127-154.
; 김민현(2014. 12), 89.

<참고 문헌>

1. 원전자료

『高麗史』. 국사편찬위원회 웹.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웹.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웹.

『日省錄』. 서울대학교규장각 웹.

『貞觀政要』(K2-33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東萊先生音註唐鑑』(韓4-57).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

『東萊先生音註唐鑑』(古2242-1). 국립중앙도서관.

『東萊先生音註唐鑑』(古2242-12). 국립중앙도서관.

『宋李忠定公奏議』(336499-506). 중국 상해도서관.

張伯偉. 『朝鮮時代書目叢刊』(全9冊). 中華書局, 2004.

『眉巖日記』.

2. 전자자료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울대학교.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3. 논문 및 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 한국문화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11.

김민현. “조선시대 陸宣公奏議의 受用과 刊行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4.12.

- 김소희. “『사기영선』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연구.” 『서지학보』 제40호(2012. 12). 127-154.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초판2쇄.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8.
- 옥영정. “인쇄관청의 활자인쇄 匠人에 대하여.” 『조선시대 인쇄출판기관의 변천과 발달』.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8.
- 장원연. “정유자본 『주역전의대전』의 간행과 교정.” 『서지학연구』 제59집(2014. 9). 371-394.
- 청주고인쇄박물관. 『갑인자와 한글 금속활자』 결과보고서.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7.
- 황천오. “貞觀政要.” 『國學資料』 25(1977). 1-7.

